佛都 부산, 5만 봉축 연등으로 물들다

불기 2567년 부산연등축제 부산연등회 개최
5월 20일, 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일대

순국선열 극락왕생 기원
2030엑스포 유치 발원도
부산불교대상 최금식 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이 부산 도심을 장엄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5월 20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불기 2567년 부산연등축제 부산연등회(이하 부산연등회)'를 봉행했다.

이날 부산연등회는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현강 정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불교TV염불공양회는 부산불교연합회와 금정총림 범어사가 마련한 느티떡을 비롯한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을 진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느티떡과 콩찐이를 나눠먹고 좋은 인연을 기원하던 옛 풍습을 선보였다. 이어 부산불교어산회가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하며 부산불교의 호국정신의 가치를 기렸다. 호국영령위령재에 참석한 대중들은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어 부산연합회 회장단 스님들과 신행단체 및 주요 내빈들이 청정한 세계를 발원하는 관불의식을 진행했으며,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장 마나 스님이 발원문을 통해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고 부산 발전을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이어 대회사와 봉축사, 내빈들의 축사 후 제5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공동주최하고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주관한 부산불교대상은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이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서보석 반도산전 대표, 신기열 목원개발 대표, 삼광사 차문화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이명숙 진각종 유가합창단 단장, 최은숙 해동중학교 교사, 고담나누미 봉사회가 수상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5월 20일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및 제등행렬을 진행했다.

시상식 후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 봉사반의 축가 음성공양에 이어 연등행렬이 진행됐다. 연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에서 송상현 광장까지 펼쳐졌으며 부산 주요사찰과 불교계 신행단체에 소속된 불자들은 직접 제작한 장엄등과 행렬등을 들고 밤거리를 밝혔다. 취타대와 내빈들의 발걸음을 따라 사천왕등, 불을 뿜는 용등, 코끼리등, 부처님등 등 다채로운 장엄등이 뒤를 따랐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 대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천진불을 대표하는 동자승들과 직접 제작한 연등을 들고 그 뒤를 따르는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금정중과 해동중학교, 해동고등학교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부산대불련 학생들도 참여해 모든 연령대가 동참하는 연등행렬로 눈길을 끌었다.

각 사찰에서 참여한 불자들은 손에 행렬등을 들고 어두운 거리를 밝혔으며, 연등을 손에 끼고서 가벼운 율동도 선보였다. 학생들의 석가모니불 정근 소리가 거리를 채웠고, 시민들에게 "성불하세요"라며 인사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회장 보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찬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비록 축제의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으로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밝은 마음과 깊은 인연은 우주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축원했다.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은 "봄바람이 생명의 기운을 피우는 좋은 날, 삼라만상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자의 마음에 무명을 걷어내고 청정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 봉축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은 "부산연등축제는 연등을 밝히는 것의 참의미를 되살려 어려운 이웃과 사회의 고통을 나누고,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은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의 탄신을 경축하고 그 가르침을 새겨 모든 인류에 전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축제를 봉행해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고 정화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함께 나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연등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증명 혜총 대종사,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현강정사, 마나 스님, 부산조계종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고문 덕륜 스님, 범산 스님, 부회장 성문 스님, 법일정사,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범어사, 동산대종사 향훈 기려

승가대학 · 일반학교 장학금 9000만원 전달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5월 12일 보제루에서 '동산대종사 열반 58주년 추모재 및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추모재는 △명종5타 △개식 △헌향 및 헌다 △죽비삼배 △입정 △동산대종사 생전 녹음법문 △행장소개 △헌화 △동산장학금 전달 △인사말씀 △부도전 헌향 및 헌다 순으로 진행됐으며,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해 동산 대종사 1세대 상좌와 동산문도회 스님 및 범어사 신행단체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동산 스님은 1954년 11월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됐고, 1958년 종정으로 재추대됐다. 동산 스님은 불교중흥과 청정승단 구현에 헌신했으며, 1965년 3월 23일(음력) 세연을 다하고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납 52세였다.

동산장학금은 총 9000만원이며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1500만원), 범어사 승가대학(500만원), 청암사 승가대학(1000만원),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1000만원), 동국대 경주캠퍼스(1000만원), 동명대학교(1000만원), 해동중학교(1000만원), 금정중학교(1000만원), 이화여대 불교학생회(1000만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은 "우리 모임의 목적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며 "제행무상이라는 진리대로 시시각각 변화는 모든 상황 속에 한 생각을 잘 지키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성보博, '올해의 박물관상 · 미술관상'

학술도록 〈불국토를 조각하다, 범어사 대웅전〉

11월까지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환응)이 5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제26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수여하는 제3회 '올해의 박물관 · 미술관상(출판물 부문)'을 수상했다.〈사진〉

올해의 박물관 · 미술관상은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활성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우수한 활동을 펼친 박물관과 미술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부문은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출판물 부문이다.

〈불국토를 조각하다, 범어사 대웅전〉은 '범어사 대웅전'을 주제로 진행한 첫 학술도록으로 대웅전의 가치를 재조명한 도록의 구성, 후속 연구 및 콘텐츠 활용 가능성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불교 목조각 장인과 건축, 공예, 조각 등 각 분야별 연구자의 원고를 함께 수록해 대웅전을 이해하는 데 다층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또 학술연구를 통해 범어사 대웅전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했고,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연차적으로 사찰문화재와 지역사 등 각 분야별 학술연구에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어린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문화 탐방을 떠나요!'를 새롭게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6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박물관 전시 관람과 시청각교육,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5월부터 11월까지(7월 방학) 매달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범어사 성보박물관 홈페이지(www.beomeomuseum.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위드아시아, 탈북청소년 장학금 전달

국제구호 NGO (사)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가 5월 20일 부산 문수사 대웅보전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위드아시아는 대전 및 포항 등에서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국내 탈북자 학생 4명에게 각각 50만원,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학생 및 가족들은 장학금 전달식 후 부산 관광 명소를 방문하고 문화 체험 및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사)위드아시아는 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불교계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고, 탈북자들에게 불교와 사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장학금 전달은 초하루 법회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사장 지원 스님은 "신도들에게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원 스님은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가 우리나라에는 3만5천 명이 넘는다"며 "목숨을 걸고 힘겹게 이 땅을 찾은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오늘 장학금 전달은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신도회 출범…회장에 김명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5월 15일 설법전에서 '신도회 출범식 및 신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신도회장은 김명진 ㈜매일마린 대표이사〈사진〉로 현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수석부회장, 한국선용품협회 회장, ㈜세화기계 대표이사를 역임한 불자 기업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산 영도구 행복장학회 이사 및 동명대학교 사업단 산학교수로 활동하며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김명진 회장은 취임사에서 "통도사 대중스님들을 외호하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종정스님의 뜻을 지키며 통도사 신도회 및 신행단체가 마음을 다해 활동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